

“고되고 힘들어도 맑고 깨끗한 삶 사세요”

조계종 노동위원회 시설 노동자 초청 동사법 법회

청화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장)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중호)는 5월 24일 청소, 경비 등 시설 노동자를 초청해 동사법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증명 법사로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나서서 ‘부처님 눈으로 본 노동자’라는 주제의 법문을 설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달픈 삶을 사는 노동자들을 위무한 이날의 법문을 지상중계 한다.

정리=배현진 수습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의미로 마련한 법회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는 봉축기념일 기념식과 법회를 준비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보다 더 중요한 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이 과연 나에게도 오셨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부처님과 내가 각각의 타인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부처님과 무연고의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불교와 인연을 맺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행 활동을 해도, 부처님이 나에게 오셨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불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마음속 깊이 축하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 성실히,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기독교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 부끄럽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자기 검증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부처님오신날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봉축 행사도 뜻 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 딜레마에 사로잡힌 한국

현재 우리나라 노동환경은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 이죠. 어딘가 답답하게 막혀있고 멧혀있습니다. 막혀있는 걸 시원하게 뚫고 멧혀있는걸 잘 풀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할 정부는 손 놓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직접 관계있는 사측, 즉 갑의 자리에 있는 이들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때문에 쌍용자동차 부당 해고자를 비롯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자 문제가 여기저기 산재해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너무 절망스러워 하고 있고, 앞길 보이지 않아 자살을 하고 또 병을 앓는가하면 길에서 농성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고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안자라는 사람이 초나라 사신으로 가게 됐습니다. 초나라 왕은 오만하고 방자했던 터라 제나라 사신의 기를 꺾을 궁리를 하고 있다가 성문 옆에 개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안자가 초나라 성문 앞에 당도하자 개구멍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모멸적인 상황에서 안자는 당당히 말합니다. “사람은 마땅히 성문으로 드나들고 개만이 개구멍으로 드나드는데, 저보고 이 구멍으로 들어오라 함은 제가 흑시 개나라에 온 것입니까?” 이 말에 초나라 왕의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이렇듯 옛날에 있던 일이 오늘날이라고 없을까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라 하지만, 이견 하나의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만 보더라도 대단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개구멍을 만들어 놓고 을에게 개구멍으로 드나들라고 합니다. 권력자와 피지배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 개구멍이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만한 자질, 품성을 갖추었 나요? 소득뿐만 높다 해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 정책들을 살펴보면 생산과 성장 중 심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면 주변의 것들도 그에 맞는 격을 갖춰야합니다. 고도성장과 생산량은 기계가 책임지지만,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권익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분배의 정의를 말하고자 합니다. 덩치가 작다 하면 나눌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하길, 재벌은 수 조원을 은행에 유 휴자금으로 예치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자, 비정규직을 양산해 내고 있죠.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재벌들이 돈을 모으는데, 이러한 성장 일반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장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떠난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비참한 현실에 여러분의 좌절과 실망이 더해져 있는데,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말이나 해서 뭘까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좋게 사용하라

부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 재능, 힘 이 세 가지가 농축된 것이죠. 이 에너지에 따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성인, 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좀 더 고결하고 깨끗하고 바른쪽으로 에너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남을 핍박하고 타락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돌려진 거죠.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고결한 쪽으로, 어떤 사람은 하천한 쪽으로 써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됩니다.

서양의 경우 기독교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코자 했습니다. 어느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종교와 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는 걸 의미하죠. 사회적 악과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서양의 기독교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했습니다. 신이라는 절대권력을 가진 존재를 앞세워 사람들 문제점을 해결코자 한 거죠. 그러나 신의 권능으로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서양 사상이, 정치지도자



청화 스님은 ... 1962년 출가, 1977년 <불교신문>, 197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 실천불교전국승교회 의장, 청명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역임. 지금은 정릉 청암사에 주석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시집<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산문집 <돌을 꽃이라 부른다>, <항기를 따라가면 꽃을 만나고> 등이 있다.

“부처님과 가까운 삶을 사는가”

스스로 자문해봐야 진정한 불자

한국 노동 현실은 최악 수준

정계계 아직도 탐욕 못 벗어

사람 떠난 성장은 의미 없어

어떤 상황서도 선택은 내 몫

긍정적 에너지만이 희망돼

들이 역사 속에서는 무수히 많지요. 그러나 이들은 종교의 옷을 입었을 뿐, 부유한 자기이익, 입장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닌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도 신도 아닌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비판하고, 반성하고 시정했을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동시에 부족한 인격체를 좀 더 완벽한 방향으로 다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낙원에 살았지만 선악과에 손대고 망했습니다. 배고파서 먹었나요? 아님 그걸 먹지 않으면 병으로 죽을 처지였나요? 선악과에 손대지 않고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때문에 손댄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문제투성이입니다.

부처님은 태자로 태어나셨죠. 신적계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여인들이 선택하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었지만, 그 모든 걸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수행해서 부처님이 되었기에 에너지를 고귀한 쪽으로 쓴 것입니다. 그렇기에 2600여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부처님이 추앙을 받고 그 가르침과 족적을 따르며 흠모하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세 사람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에너지였음에도 무엇을 향해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차이죠.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아야

여기서 바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선택이죠. 내 무의식과 사고력과 수준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모든 걸 성찰하고 이것저것 비교하고 가장 고귀하고 바르고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서 훌륭한 인간으로 변모될 수 있지만, 욕망, 탐욕, 이익을 좇아 부도덕 범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지탄받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간에 이리저리러그 성격이 안 맞는다느니 하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디서 기인한 걸까요. 다름 아닌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남편 입장에선 아내 탓을 하지만 남편 자체도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는 사람이건 불완전한 인격체이기에 남의 잘못을 지적할때는 조심스러워야 하죠. 그리스 사상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에는 많은

모순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순들이 있기에 대립되는 것들끼리 투쟁하고 그럼으로써 세계가 부단히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이야기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사회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역동이고 힘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고통이 담긴 현실에서, 거기에 저항하고자 하는 힘, 그 꿈틀함이 투쟁으로 이어져 현실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시끄럽고 말쑥이 많입니다. 왜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불합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만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부

부간에 배려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안 되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소망을 바랄지 선택하십시오. 어떤 것을 지향할지를 결정하는 에너지를 통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살더라도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귀하고 맑고 깨끗한 쪽으로 에너지를 쓰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사람다운 모습이고 사람다운 정신이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다주교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금년 부처님오신날 맞이해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삶을 진실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찰해 보십시오. 과거의 나와 결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되길 노력하십시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돌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자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썩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오추베개등 자매품다양)